

빛·인건비 부담에...광주·전남 자영업자 80% '나홀로 사장'

자영업자의 몰락

광주·전남지역 자영업자의 '삼중고'는 각종 통계에서도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끝없는 경기 불황 속에 자영업자의 수가 급격히 줄고 있고, 빚 부담은 늘어만 가고 있다. 특히 임금 인상에 따라 고용없는 1인 자영업자 숫자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다.

◇경기불황 속 '나홀로 사장'만 증가=지난 7월 말 기준 광주·전남 지역 자영업자는 전년동기 46만2000여명에서 45만5000여명으로 7000명(1.5%포인트)이 줄었다.

이 기간 고용이 있는 자영업자는 9만1000여명에서 8만3000여명으로 1년새 8000여명이나 감소했지만 고용없는 자영업자 수는 1000여명이 증가한 37만2000여명에 달했다. 이는 전체 자영업자의 80%가 넘는 수치다.

이들 대부분은 채소가게나 의류점, 수

7월 기준 37만 2천여명...채소가게 등 대부분 영세 전체 자영업자는 45만5천명...전년비 7천명 줄어

퍼, 분식점 등을 운영하는 영세자영업자로 나타나 심각성은 더 크다.

이같은 고용 없는 자영업자 증가는 자영업의 운영구조와 고용시장 약화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취업전선에서 물러난 청년층과 은퇴 이후 중장년층이 창업시장으로 꾸준히 유입되고는 있지만, 고용 없이 '나홀로' 운영하다보니 고용창출 효과가 미미하다는 것이다. 임대료 부담과 매출 부진에 따른 적자 운영을 피하기 위해서는 고용 인원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 없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가족들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아진다 보니 고용시장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다. 광주·전남의 경우 무급가족종사

자가 1년 사이 12만9000여명에서 11만7000여명으로 1만2000여명이 줄었지만 고용이 없는 자영업자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인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수는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체 재무 건전성 취약에 빛 대물림도 우려=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 2014년 현재 광주지역 사업체 수의 79.5%로 차지하는 자영업체는 외부자금 의존도가 다른 지역에 비해 높고 필요 자금도 주로 금리가 높은 비은행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조달하고 있어 재무 건전성이 극히 취약하다.

광주지역 자영업체의 창업시 평균 부채 비율은 지난 2013년 기준, 36.4%로 전국 평균(24.2%)과 다른 광역시(14.3~26.3%)

보다 높은 수준이다. 또, 광주지역 자영업체의 평균 부채규모는 5107만원으로 인천(6364만원)을 제외한 다른 광역시(3518만~4854만원)보다 크다. 이는 4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그동안 지속된 경기 불황 탓에 올해 자영업체의 평균 부채비율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광주지역 금융기관의 가계 대출 중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인 저신용자에 대한 대출 비중은 8.0%로 다른 광역시(6.2~7.9%)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광주지역 자영업자들이 비은행금융기관에 대출을 하는 비율도 20.6%로 전국 평균(16.0%)보다 높고 친인척에게 빌리는 경우는 32.9%에 달해 전국 평균(22.5%)을 크게 앞지른다. 이처럼 부모들이 금융 상태가 부실하다 보니, 더 이상 빚을 내지 못하고 자녀들에게 손을 내밀어야 하는 구조가 생길 수밖에 없어 청년들의 빛 대물림 현상이 우려된다.

◇늘어만가는 빛...노란우산공제까지

해지=자영업자의 몰락은 늘어나는 빚 규모에서도 그대로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이 나이스신용평가의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국 자영업자 약 150만명의 총부채는 약 520조원으로 집계됐다. 2015년 말 약 460조원이었던 것이 1년 만에 60조원(12~13%) 늘어난 것이다. 자영업자 1인당 3억5000만원꼴로 빚을 떠안은 셈이다. 최근에는 운영하는 가게가 어려워지면서 가입했던 노란우산공제까지 해지하는 경우도 늘고 있다. 소기업인 또는 소상공인이 불확실한 미래를 위해 쌓아놓은 자금까지 찾아쓰고 있다는 것이다.

2010년 407건(19억원)에 불과하던 노란우산공제 해지 건수는 2011년 1042건(42억원), 2012년 2158건(72억원), 2013년 4356억원(128억원), 2014년 5986건(230억원), 2015년 7241건(330억원) 2016년 1만311건(498억원) 등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들어서도 해지가 급증,

지난 2월말 기준으로 1830명(9억원)의 소상공인들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했다.

이처럼 노란우산공제 등 미래를 보장하기 위한 공제 해지가 급증하고 있는 데엔 자영업자 등 소상공인들이 그만큼 먹고 살기 힘들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소상공인으로 대표되는 자영업자의 월평균 영업이익은 임금 근로자 소득의 70% 수준에 불과하다. 창업 후 5년 이내 폐업하는 비율이 70%에 달할 만큼 열악한 경영환경에 처해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들은 "특히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경기불황과 취업시장 한파가 겹쳐 고용은 안 되고 자영업자도 줄어드는 추세가 맞물린 형태로 고용시장과 창업시장 모두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박태환 안세현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 박태환·안세현 홍보대사 위촉

한국 수영의 간판 박태환(28·인천시청)과 안세현(22·SK텔레콤)이 2019 광주 세계수영선수권대회 홍보대사로 위촉된다.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는 28일 "박태환과 안세현을 대회 홍보대사로 위촉한다"고 밝혔다. 위촉식은 다음 달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다.

2008년 베이징올림픽 남자 자유형 400m 금메달리스트인 박태환은 한국 선수로는 유일하게 세계수영선수권대회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2007년 호주 멜버른, 2011년 중국 상하이 대회 남자 자유형 400m에서 1위를 차지하고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열린 올해 대회에서는 자유형 400m 4위, 200m 8위, 1.500m 9위에 올랐다.

안세현도 한국 수영의 세계선수권대회 도전사에 한 페이지를 장식했다. 안세현은 올해 부다페스트 대회 여자 접영 100m와 200m에 출전해 두 종목 모두 결승에 올랐다. 나아가 접영 100m에서는 5위, 200m에서는 4위를 차지해 잇달아 한국 여자 수영 선수 역대 최고 성적을 갈아치우는 역경을 펼쳤다. 한국신기록도 3차례나 작성했다.



신병교육대 입소 신고 북한이 최근 단거리 발사체로 도발을 이어간 가운데 28일 오후 강원 화천군 육군 15사단 신병교육대에서 열린 입소식에서 임영 장병들이 합쳐서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산자부 "금호타이어 매각, 방위산업·국가경쟁력 등 다각 검토"

금호타이어 매각 협상이 우선협상 대상자인 중국 더블스타의 가격 인하 요구로 새로운 국면을 맞은 가운데 해외 매각 승인권이 있는 산업통상자원부의 백운규 장관이 28일 "방위산업, 국가경쟁력 등 여러 차원에서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백 장관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의 "금호타이어가 중국에 매각될 경우 기술이 빠져나가면서 국내 경

쟁력이 약화하는 데 이를 막을 복안이 있느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금호타이어는 군수용 타이어도 생산하고 있어 매각하려면 산업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와 관련, 백 장관은 "방위사업청이 매각 사전 승인과 관련해 기술유출 방지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해 달라고 했다"며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앞서 백 장관은 지난 21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참석, 국민의당 정인화 의원

이 "더블스타 측에서 (방산기업) 매각 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데 대한 의견을 말해 달라"고 요구하자 "(금호타이어가 보유한 기술) 공군의 타이어에 매우 중요한 기술로 판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또 "금호타이어의 방사청 납품 규모는 매출액의 0.03%를 차지한다"며 "방산에 대한 기술을 심각하게 보고 있고, 방위사업청에서 기술위원회를 통해 (금호타이어 측 기술의 중요도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삼성 이재용 2라운드 공방 예고

변호인측·특검 이번주 항소할 듯...선고는 내년 2월

1심에서 뇌물공여 등 5개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박영수 특별검사 모두 곧 항소할 방침이어서 '2라운드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항소는 선고 후 7일 이내에 해야 하지만 이번 주 안에 이뤄질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항소심에서 어떤 전략을 펼칠지, 특검팀은 어떻게 대응할지 주목된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부회장 측은 핵심인 뇌물공여 혐의를 벗어내기 위한 총력전에 나설 전망이다. 1심은 최순실·정유라 스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재단 지원에 뇌물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 측은 1심이 '포괄적 현안'으로 본 경영권 승계에 도움을 받기 위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증명되지 않았고 박 전 대통령 최순실씨의 '공모'도 입증되지 않는다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검이 승계 작업으로 보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은 계열사의 경영 필요에 의한 것이며 이 부회장의 지배권 강화 포석이 아니라는 취지다. 또 공무원이 아닌 최씨 측에 건넨 지원금을 박 전 대통령이 받은 것과 같다고 볼 정도로 두 사람의 관계가 급전

적 이익을 향유할 만한 '경제적 공동체' 수준인지, 삼성의 지원이 현안에 도움을 받으려는 청탁의 결과인지, 그 과정에 고의성이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이다.

삼성시 대응 전략을 새로 짜면서 변호인단 구성에 변화를 줄 것인지도 관심이다. 1심에서는 대법관 보좌 조직인 대법원 재판연구관실을 이끄는 선임연구관에 이어 총괄 책임자인 수석 재판연구관까지 지낸 송우철 변호사를 비롯해 법무법인 태평양을 중심으로 변호가 이뤄졌다. 하지만 1심 유죄 선고에 따라 총력전이 불가피한 만큼 여타 대형 로펌이 가세하거나 일부 바뀌는 등 변호인단 구성에 변화가 있지 않겠느냐는 예측도 흘러나온다.

항소심 심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2심 최다 구속 기간인 6개월까지 구치소에 수감된 채 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2월 28일 구속기소된 그의 2심 구속 만기는 내년 2월 27일이다. 특검법은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끝내도록 규정하지만, 사실상 권고 성격으로 받아들여진다. 이에 따라 항소심은 구속 기간 만료 전인 내년 2월에 임박해 선고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연합뉴스

지난 20년간 1만2천명이 수강한 명강의

부동산 컨설팅과 실전경매

정영수 경영학박사(부동산전문)

전남대 경영연구소 전임연구원, MBC-TV 방송국 경제특강 평생교육공로 교육부 장관상 수상, KBC-TV 아침야영 생방송 출연, 건설부 장관과 세미나 토론 참여, 공무원연수원 등 500여 이상 특강

지난 34년간 터득한 부동산컨설팅과 실전경매 노하우를 전수하며 자격 취득희망사, 국가공인부동산발달경영관리사, 부동산분양상담사, 부동산관리분석사 등 자격 취득토록 책임지도하며 수료후 모임체 결성후 평생지도 합니다. (공무원, 교직원, 학생 할인)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 정확하게 알아보고 성공전략강의”

●강의기간 : 9월~12월(15주) 각 과정 선착순 50명마감

장소	조선대 평생교육원 ☎ 230-7700	남부대 평생교육원 ☎ 970-0080	전남대 평생교육원 ☎ 530-3873~4
일시	매주(화요일) 주: 3시~5시 아: 7시~9시	매주(수요일) 아: 7시~9시	매주(목요일) 아: 7시~9시
수강료	20만원	20만원	20만원

부동산강의 및 컨설팅상담 010-5613-1808(정영수박사)

수강생 모집

DIY 이동식 전원주택짓기

전원주택, 목조주택, 펜션, 농막

지진과 단열 목조주택 강좌

광주대학교 호실관 ☎ 062-670-2167~8
9월 ~ 12월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 9시

남부대학교 삼애관 ☎ 062-970-0082~3
9월 ~ 12월 매주 목요일 저녁 7시 ~ 9시

목포대학교 남양캠퍼스 ☎ 061-270-1612, 3
9월 ~ 12월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 9시

광주남부대학교/국립목포대학교 평생교육원
전담강사 상담 010-5766-5754

한마음 공인중개사

▶동구 산수동 대지 654㎡(약 400㎡는 도로부지 편입) 푸른길 집, 삼거리 코너(뒷집 작업중), 매매 4억3천만원

▶나주혁신도시내 택지개발지구 빛가람동 대지 239㎡ 건물 1층 142㎡ 임대보증금 3천만원 월300만원 포함, 매매 4억2천만원

▶무등산 중장사근처 고급전원주택 금곡동 대지, 전, 임야 3,500㎡, 주택 1층 126㎡ (주택액 정면 잔디밭 700㎡, 주택 뒷편 밭 800㎡, 주택액 대나무숲 1,300㎡, 주차장 소재) 사장상 급매, 매매가 7억(조정가)

▶화순 도곡천내 무인텔 대지 3,000㎡, 건물 4층 3동, 객실 37개, 월 매출 6천만~7천만원(장부공개), 용자 28억원 포함, 매매가 37억

▶임대 - 중흥동 중흥초교 옆 건물(전체 리모델링완료) 1층상가 94㎡, 뒷편 창고사용가능, 보1천만 월120만원 2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40만원 3층사무실 94㎡, 보1천만원 월30만원

매물 접수, 상담 환영
☎ 문의 010-2314-8567 김형호
게릴모거리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4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에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습니까?
제로금리시대, 불안하십니까?
퇴직이후가 걱정되십니까?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로 고수익을 볼.

2017년도 2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무료공개 강의일시 : 9월 7일(목) 주간 10시, 야간 7시

•모집기간 : 2017년 8월 29일(수) ~ 2017년 9월 8일(금)
•교육기간 : 2017년 9월 7일(목) ~ 2017년 12월 14일(목)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수강료 : (한학기) 20만원(예금주: 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chosun.ac.kr/igilong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2017년도 2학기
순천대학교 평생교육원

▶ 무료공개 강의일시 : 9월 5일(화) 야간 7시

•모집기간 : 2017년 8월 1일(화) ~ 2017년 9월 8일(금)
•교육기간 : 2017년 9월 5일(화) ~ 2017년 12월 22일(금)
매주 화요일 야간 19:00 ~ 21:00
*수강료 : (한학기) 20만원(예금주: 순천대학교) 농협 643-01-007060
•신청방법 : 평생교육원 홈페이지 http://silong.suncheon.ac.kr [인터넷 수강신청]
•접수문의 : 061)750-5076~8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